

buddhanews.com

누구든지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혀야!

21면에서 계속

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 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 하듯 다 자기네를끼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말을 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출한 것은 뭐냐? 말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도리입니다. 이게 정신계의, 바로 중용의 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나 천체물리학자가 자기 소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걸림 없이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일체 우주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가깝고 멀고 가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만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 이론 등 지금의 지식이나 의학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100%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그 병도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계의 50%를 총괄할 수 있고, 거기에 물질을 쪼개 버리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의료상의 50%가 종합돼야 우리가 100%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러합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의 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장승을 하나 세워 놔도 장승 세워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고 오면서 보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거기 투입이 돼서 다 신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저렇게 모셔 놓으면 그 모습만 봐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마음을 거기다 다하기 때문에 어려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부처님도 안 계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내는 것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제가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정신계의 근본이 없다면 바로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주 높은 데고 낮은 데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엇이 무엇을 지켜보는가?
문 편안하고 함은 곧 지켜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지켜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 자기의 마음이 현재 상태를 지켜보는 것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놓고 가는 것인가?
답 마음이라는 건 허공과 같아서 마음이 요거 한 가지를 생각했다면 고정되게 그거 한

가지만 딱 물려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요 마음으로 화할 수 있고 저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죠? 금방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또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게, 자기 마음 근본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이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러는 건 이렇기예요. 그러나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참선(禪)이예요. 그리고 관법이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번 실험하려면,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엇을 하나 해도 실험해 보려면 한번 놓고 지켜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 맡겨 놓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 놓고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실험이요, 그것이 지나가면 바로 체험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데 천만의 말씀이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 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가 딱 맡기고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가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 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내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분다면 아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걸어오긴 틀림없이 걸어왔는데 걸어진 사이가 없다. 내가 짊어지고 온 게 아니니까. 밧이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걸어진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자기가 했던 말 하지 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공용으로 했다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공용으로 한 것이지 자기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왔는데,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어진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위 공장 하나만 그냥 파워가 일어나도 다리도 떼어 놓지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한 거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그

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기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유스럽게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칠석날 촛불을 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짝이 낫는데 그 짝은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칠석날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백종(百種)은 왜 생긴 건 줄 아십니까? 백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백종입니다. 씨가 아직 땅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관계상 여러 신도님들은 부모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씨는 다 마찬가지로 갑니다. 작은 놈도 자기의 그 씨를 모르니까 갑니다. 살아 있을 때에 그 씨를 물렸기 때문에 자기가 씨로 그냥 있는 줄 알고 허공중에 헤매는 조상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도님들이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물을 축축하게 해 놓으면 스님네들은 씨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짝이 되고 할 때에,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천도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열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씨가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죠. 또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자기 씨에서 자라 낫다는 거를 그 조상의 영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네들의 소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온 연중에 자기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뿌리도 알게 될 것이며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알게 될으로써,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냥 절에 와서 촛불이나 켜고 향이나 피우고 물이나 떠 놓고 꽃공양이나 하고 "난 절에 갔다 왔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져서 낫고, 자기로 인해서 공용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만 제대로 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뿌리와 자기 짝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스님네들은 스님네들대로 물을 축축히 주면서 '마음을 밝혀서 네 뿌리를 보아야 된다. 네 뿌리가 일체 살림을 하고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들어가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칠석날 촛불을 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놓고 관하고 지켜보고, 관한다는 게 지켜보는 거니까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거기가 맡겨 놓고 지켜본다. 지켜보면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아, 고놈이로구나!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그때는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죠.

이익과 욕심에 꼬달릴 수밖에 없는데

문 선원에서 스님께 배울 때는 모든 것을 놓으라고 배우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문제에 부딪칠 때는 자기에게 이익 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마음자리에 두지 못하고 이익과 욕심에 꼬달려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도 이익과 욕심에 꼬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과 생활의 양극단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답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사람이 안 온다 온다 이런 문제들, 뭐 이속을 찾는다. 이익이 부진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는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생각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예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묘한 법은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해야 아실 겁니다.

지금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또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남과 같이 돈을 벌어야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다 놓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뒤바뀌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걸어오실 때에 그냥 서서 걸어 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오긴 했는데 발자취를 하나도 짊어지고 온 게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돈벌이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아래에서 걸어오실 때에 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게 참 묘하죠.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칠석과 백종에 대한 신도와 스님의 역할

문 얼마 전 현대불교신문에서 그토록 활발했던 부산지역 대학생 동아리들이 숫자가 줄어서 전체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듯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와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이런 시기에 칠석과 백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그리고 신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스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부처님 가르침의 참 뜻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답 해마다 '칠석(七夕)'이 돌아옵니다. 칠석날!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닌 고로 종합적으로 어려라고 하는 거와 같이, 칠석이라는 이름은 종합된 이름입니다. 칠석! 그러면 또 칠성은 무엇인가? 그거는 개개인들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떼려야 뗄 수 없듯이, 성 자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칠성은 개개인의 성일 뿐만 아니라 이름과 성을 종합해서 칠성이라고 이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도, 어떠한 별성도, 우주 천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

권 선 문

이 어려울때, 불사를 시작하여 동참을 권선하니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나,
 이럴때일수록 평상심을 유지하여,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빈도는 경남산청, 천룡이 감싸 외호하는 구인산(具仁山) 금관봉(金冠峰) 높은 곳에 터를 잡고 '불 세계'를 함께 열거자 합니다.

지금, 화주도 시주도 없고, 전화는 물론 지하수도 전기도 컨테이너박스마저 없고, 인도만 있는 청정본연 그대로입니다.

여법하게 수행하여온 고참납자이거나 치성한 오탁약세의 험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자의 정성을 여기에 모으자 합니다.

태고 보우국사 제20대(사명대사 제13대)
정맥법손 석 보각
 010-2317-037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약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간 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종양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기운을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정보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뜨면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